

세계로 뻗는 캐릭터... 네이버·카카오, 협업 마케팅 한창

네이버

강남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당일 소비자 8000여명 방문
BTS, 라이카 등과 협업제품 선보

카카오프렌즈

홍콩 랭함 플레이스에 팝업 스토어
패션·베이커리 등 기업들과 협업
트와이스가 기획한 에디션 출시도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캐릭터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한창이다. 캐릭터 상품 판매점을 넘어 지역·브랜드·연예인과 협업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에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점'을 오픈했다. 스토어 오픈 당일,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이 오픈 전부터 강남역까지 300미터 가량의 긴 줄을 서고, 늦은 밤까지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오픈 당일에만 8000여



라인프렌즈가 지난 8일, '라인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점'을 오픈했다. 라인프렌즈 대표 캐릭터 '브라운'.



카카오프렌즈 홍콩 랭함 플레이스 팝업스토어 매장 이미지.

/카카오X'

명이 방문했다. 이로써 강남역 인근에 라인프렌즈와 카카오프렌즈 매장이 모두 입점하게 됐다.

그 동안 라인프렌즈는 전 세계 14개국 및 지역 내 150여 개 스토어를 오픈하며 수많은 글로벌 소비자를 만났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와 LA 할리우드, 일본 하라주쿠 등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요 도시에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난 6월 오픈한

미국 'LA 할리우드 플래그십 스토어'는 오픈 직후 주말에만 1만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8일에는 라인프렌즈의 대표 캐릭터 '브라운'의 생일을 맞아, '라인프렌즈 스토어 흥대점'에서 100여 명의 라인프렌즈 팬들과 함께하는 '브라운데이'도 진행했다. 현장에는 팬들이 직접 만든 라인프렌즈캐릭터작품들과 '브라운프렌즈' 원화가 전시되었으며, '브라운

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 팬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최근 라인프렌즈는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글로벌 밀레니얼 인기 캐릭터 'BT 21'의 디자인을 담은 즉석 카메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에 한창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캐릭터로 유

명한 카카오프렌즈도 글로벌 명소에서 인기가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지난달 홍콩의 유명 쇼핑명소 '랭함 플레이스'에 첫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홍콩 패션 브랜드 '초콜렛', 베이커리 브랜드 '세인트 아너 베이커리', 리빙 브랜드 '카사 블랑카' 등 여러 분야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 및 협의 중이다.

최근 트와이스와의 협업을 통한 '카카오프렌즈트와이스에디션'도 출시했다. 카카오프렌즈가 K팝 아티스트와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와이스 멤버들이 직접 기획과 디자인에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라인프렌즈는 방탄소년단(BTS)과 협업한 캐릭터 제품 BT21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프렌즈는 식음료 제품에도 캐릭터를 입혀 꾸준히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12일 카카오프렌즈는 선데이치즈 불에 이은 '선데이 치즈케이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볼보 중형 SUV XC60.

넓은 공간, 안정성... 패밀리카로 제격



볼보 'XC60 T8'

4존 온도조절로 쾌적한 실내
정속성 등 주행성능도 만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볼보자동차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볼보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소비자가 주 고객층인 중형 SUV XC60은 매달 300대 이상 판매되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XC60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 'T8'을 시승하며 인기 비결을 분석했다. 시승구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를 출발해 경기도 포천까지 왕복 130km로 도심과 고속구간을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XC60의 외관은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T자형 풀-LED 헤드램프를 적용해 단단하고 당찬 느낌을 준다. 또 1세대 모델과 비교해 차랑 길이(전장)는 45mm, 차랑 폭(전폭)은 10mm 늘었다. 대신 차랑 높이(전고)는 55mm가량 낮아졌다.

실내는 최상위 모델답게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시트는 최고급 소 가죽인 나파 가죽을 적용했으며 전

연 나뭇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우드 트림을 탑재했다.

1열과 2열 시트의 착좌감은 단단한 편이지만 탑승자가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단단하게 조여주면서 안정감을 높여준다. 또 2열 탑승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장치도 돋보인다. 실내공기청정 시스템 기능이 포함된 '4존 온도 조절' 기능을 추가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넓은 실내 공간은 물론 트렁크 공간도 넓어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는 4인 가족의 패밀리카로 부족함이 없었다.

주행 성능도 만족스러웠다. 정속성은 물론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힘을 발휘한다. 볼보 XC60 T8은 2.0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최고출력은 405마력, 최대토크는 엔진 40.8kg.m, 모터 24.5kg.m를 각각 발휘한다. 일반적인 SUV 모델들의 최고출력은 170~200마력 수준인데, XC60 T8은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 때문에 고성능 SUV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면서도 XC60 T8의 연비는 10.9km/L를 기록했다. 공인 복합 연비 10.3km/L를 넘어섰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볼보 XC60 T8은 인스크립션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83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국내 SUV 유일 저공해' 코란도 가솔린 출시

쌍용차, 엔트리 패밀리 SUV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 획득
공영주차장 등 50~60% 할인

쌍용자동차는 '엔트리 패밀리 SUV (다목적 스포츠차량)' 코란도 터보 가솔린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와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란도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8.6kg.m의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은 높은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 유일하게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을 받은 코란도 가솔린은 혼잡통행료와 공영·공향주차장 이용료 50~60% 감면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 설계를 통해 인간공학 디자인상(EDA) 그랑프리 수상한 코란도는 551리터(VDA213 기준) 적재공간, 동급 최장 앞뒤좌석 간격으로 여유로운



코란도 가솔린 모델

/쌍용자동차

실내공간을 갖춰 자녀가 있는 가족의 패밀리카로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내 최초 15W 고성능 무선충전패드가 적용되었다. 5~10W 규격인 경쟁모델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충전(휴대폰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독립 사양으로 운영해 불필요한 사양이 포함된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충돌 직전 탑승객의 신체를 잡아 주었다가 필요 시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제시켜 상해를 예방하는 동급 유일 침

단 안전벨트 시스템이 1열은 물론 동급 유일 2열에도 적용되며, 운전석 무릎에 어백을 포함하는 7 에어백을 적용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진다.

판매가격은 트림에 따라 ▲C3 2256만원 ▲C5 2350만원 ▲C5 프라임 2435만원 ▲C5 플러스 2570만원 ▲C7 2755만원으로 디젤모델 대비 최대 193만원 저렴하고, 엔진다운사이징으로 경쟁모델과 비교해 낮은 자동차세 덕분에 경제성도 우수하다.

/정연우기자 ywj964@

네이버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미공개 특별편 공개

네이버웹툰이 인기 작품 '타인은 지옥이다'의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원작 재연재 진행과 함께 미공개 특별편을 공개한다.

총 6화 분량으로 13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씩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다.

13일 선보이는 특별편 '타인지옥-연쇄살묘사건'은 미공개외전으로 주인공 윤종우가 서울로 상경하기 전, 고시원이 있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을 다룬다.

/구서윤 기자

네이버 파파고 이미지 번역 정확도 57% ↑

네이버씨가 제공하는 인공지능(AI)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가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 중국어, 한국어 3개 언어에 대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지 번역 기능의 경우, 파파고 앱 사용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여행지에서 메뉴판을 번역하거나 간판만 보고 식당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번에 개선된 이미지 번역 엔진의 핵심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문자 추출 및 인식이 기존 엔진 대비 57%가량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회사 측은 또 사용자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미지 내 텍스트를 자동으로 검출해 번역할 수 있는 '전체 번역' 기능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해당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사진 속 문자의 전체 맥락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한편, 파파고는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들은 파파고 이미지 번역 기능을 사용해 본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구서윤 기자